"선은 니가 넘었어!" 걸크러시 폭발 이 장면이 이세영 캐릭터 정점이죠

'스토브리그' 종영 운영팀장 역 박은빈

"어린 여성 팀장 향한 편견 이겨내 뿌듯 캐릭터가 부숴야할 벽, 연기하며 느껴"

"현존하지 않은, 선례가 없는 캐릭터이다 보니 현실성 문제와 맞닿아서 그 캐릭터가 뛰어넘어야 하는 관문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24일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박은빈(28)은 차분하게 캐릭터 연구 과정을 털어놓았다. 캐릭터 연구와 마음가짐을 적어놓은 두꺼운 노트를 들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중언부언할까 봐 (들고 왔다)'라며 웃는 모습에서 신중한 성격이 느껴졌다.

박은빈은 최근 종영한 SBS TV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구단 드림즈의 최연소 운영팀장 이세영 역을 연기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 선수들이 아닌 뒤에서 일하는 프런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드라마에서 '할 말은 하는' 뚝심 있는 운영팀장으로 활약했다.

"SK와이번스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그곳 운영팀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프런트 중에서도 여자가 별로 없고, 운영팀장도 어린 여성이 나오는 건 현시점에선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려가 컸어요. 세영 캐릭터가 부숴야 하는 벽을 저도 연기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그는 극 중 이세영에 대한 편견을 자신도 덩달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초반엔 여성 최연소 운영팀장이라는 설정에서 오는 편협한 시각과 선입견을 저조차도 같이 부딪히면서 이겨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이세영 팀장을 인정해주고 마지막엔 차기 단장감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걸 보면서 기뻤어요. 알게 모르게 들였던 노력을 알아주는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뿌듯했죠."

박은빈은 이세영 팀장이 드림즈 단장이라는 여운을 주며 끝나는 결말에 대해 "제가 완벽한 단장이 됐을까 싶기는 한데…그 부분은 열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7회 마지막 장면은 이세영의 '걸크러시'가 폭발하는 장면으로 많은 화제가 됐다. 서영주 선수(차엽 분)가 배승수 단장(남궁민) 무릎에 술을 쏟아붓자, 이세영이 화를 참지 못하고 "선은 니가 넘었어!"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다.

박은빈은 "그 부분이 이세영 캐릭터의 정점이지 않았나 싶다"라고 밝혔다.

"운영팀장으로서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 이렇게 지르는 것에 대해 걱정도 했어요. 운영팀장이 선수한테 유리잔을 던져도 괜찮을까 싶었죠. 인간관계에서 선 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영이가 질러준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제 성격에 대해서는 "배트를 휘두르거나 유리잔을 던지지는 않지만, 속에 단단한 뭔가가 있는 외유내강형"이라고 덧붙였다.

1998년 드라마 '백야 3.98'로 데뷔한 그는 아역을 거치고 이젠 어엿한 성인 연기자로 자리 잡았다. 연기 경력으로만 따지면 웬만한 중견 배우 못지않다. 그런 그에게도 '스토브리그'는 신선한 작품이었다.

"아무래도 극 중 남자들이 해결사 면모를 자주 보이잖아요. 남성 캐릭터가 무슨 얘길 하면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라고 반응을 한다든지요. 반면 극의 전개를 위해 여성 캐릭터가 당위성이 떨어질 만한 행동을 해야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왔어요. 작가님과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오랫동안 숙고해 온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번 드라마에선 그런 클리셰를 깨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승수 단장과 이세영 팀장이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덕분에 연기하면서 저 자신도 설득이 잘 되고 편했습니다."

2005년 삼성생명 TV 광고 '딸의 인생은 길다'에서 수줍은 모습이었던 그는 어느덧 한국 나이로 20대 후반의 나이가 됐다. 박은빈은 "나이가 언제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어쩌면 나와 다른 내가 될 수도 있었을 선택들을 많은 것들이 지나고 나서야 안 거죠. 작품은 까놓고 보지 않으면 모르는 순간이 많으니까요. 내가 그 작품 대신 다른 작품을 했다면 다른 모습이 되어있겠구나 싶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의 절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미련이나 후회는 최소화하려고 해요." /연합뉴스

몬스타엑스 '빌보드 200' 첫 입성에 5위

영어앨범 '올 어바웃 러브' K팝 저변 확대 신호

차세대 K팝 주자로 상승 일로인 보이그룹 몬스타엑스(사진)가 첫 미국 정규 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5위로 데뷔했다.

빌보드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예고 기사에서 몬스타엑스 미국 정규 1집 '올 어바웃 러브'(All About Luv)가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5위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닐슨뮤직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매된 이 앨범은 20일까지 실물 앨범 판매고 5만 장을 포함해 총 5만2000 점을 획득했다. 공식 차트 순위는 25일 발표된다.

빌보드는 앨범 판매량과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rack equivalent albums·TEA),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를 합산해 앨범 차트 순위를 산정한다.

몬스타엑스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셔누, 민혁, 기현, 형원, 주헌, 아이엠) 보이그룹으로, 해외 팬덤이 두터워 대표적 '신흥 대세' K팝 그룹으로 꼽힌다.

그간 '소셜 50',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월드 앨범', '톱 앨범 세일즈' 등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지만 빌보드 메인 차트 입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 음반사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에픽레코드와 계약했으며 지난 14일에 11곡 전곡이 영어로 된 '올 어바웃 러브'를 발매했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 200' 5위 안에 진입한 것은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슈퍼엠(SuperM) 이후 몬스타엑스가 사상 세 번째다.

K팝 그룹들이 잇따라 빌보드 최상위권에 진입한 것은 K팝이 미국 시장에서 점차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하며 외적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몬스타엑스의 경우 K팝 그룹 특유의 정체성과, 팝 사운드가 두드러진 영어 앨범으로 현지 대중에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전략을 혼합한 점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송가인, 1940년곡 '화류춘몽' 음원 26일 발매

코로나19 대응에 음원수익 전액 기부

트로트 스타 송가인(사진)이 가수 고(故) 이화자의 1940년 곡 '화류춘몽' 리메이크 음원을 발매한다.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송가인의 '화류춘몽' 음원이 오는 26일 정오 발매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송가인은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2 무대에서 '화류춘몽' 무대를 선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남은 전국투어 일정이 연기되면서 대신 팬들을 위해 '화류춘몽' 음원 발표를 결정했다.

송가인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화류춘몽' 음원 수익을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고립낙원(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5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빠샤 메카드S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톡톡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늬우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포구만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날아라 슛돌이 뉴 비기닝(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슛돌이 뉴 비기닝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3.1절 특선영화 〈말모이〉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고립낙원		
11	35 UHD 숨터 40 바다 건너 사랑	00 스탠드 업! 셀럽 스페셜		10 불타는 청춘
12	3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50 2.28 대구학생의거 기념 KBS걸작 다큐멘터리(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영상앨범 산(재)	1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애코와 친구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즈
09:40 야옹멍멍 귀여워2
10:00 특집 부모특강-0.1%의 비밀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건축탐구 - 집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4:45 몰랑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15:10 로보카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엄마 까투리(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페파 피그(재)
16:40 딩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스파이더맨
19:3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0:00 머털도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남미지질기행
-물의 축복,이구아수 폭포〉
21:30 한국기행
〈봄, 봄이 오면 2부
내 인생 최고의 봄날〉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건축탐구 - 집
23:35 미래교육 플러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5일(음 2월 2일 戊戌) ☎010-9790-8237

子 36년생 원래부터 관련이 없는 것이었느니라. 48년생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다. 60년생 확신을 갖고 임해도 되느니라. 72년생 평상시에 바라고 있었던 마음가짐으로 판단해야 틀림없겠다. 84년생 분명하게 절제하지 않는다면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96년생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행운의 숫자 : 39, 76

丑 37년생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49년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61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보인다. 73년생 전환점에 이르렀으니 슬기롭게 임하자. 85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97년생 표리가 일치하니 참됨이 상서로움을 부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74

寅 38년생 주변의 위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판도이다. 50년생 끝까지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62년생 반드시 해결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느니라. 74년생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바와는 달리 의외로 싱겁게 끝나 버릴 수도 있다. 86년생 순환 구조를 띤다. 98년생 드디어 공들여 왔던 것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50, 64

卯 39년생 기교가 수익 창출의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51년생 끊고 맺음을 정확히 해야 한다. 63년생 평길을 도모할 정도는 될 것이다. 75년생 확실히 승세를 굳힐 수 있다. 87년생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99년생 과신함은 참으로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06, 73

辰 40년생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것이다. 52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 질 것이니라. 64년생 점점 가닥을 잡게 되는 형국이니라. 76년생 고민했던 바가 드디어 해결 되겠다. 88년생 없어진 이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00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탄력을 받으면서 일취월장하리라. 행운의 숫자 : 33, 68

巳 41년생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대비 해야겠다. 53년생 지나치다면 위험한 형국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65년생 현태대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니라. 77년생 유기적인 관계 속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단계. 89년생 솔선수범 한다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니라. 01년생 창의성과 개성의 발현이 절실히 요구 된다. 행운의 숫자 : 01, 72

午 42년생 필요로 해 왔던 것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4년생 도모하던 바는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66년생 발전의 물꼬를 트는 길사가 발생하리라. 78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없어서 애가 타겠다. 90년생 잘 한다면 원만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02년생 이론이 아니라 실황에 따르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10, 86

未 31년생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원스럽게 양보하는 것이 더 낫다. 43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55년생 폭 넓은 시야가 발전적인 단계로 이끈다. 67년생 초기 계획과는 약간 다르게 이행 될 가능성이 높다. 79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 91년생 다각도로 여러 번 검토해 보지 않으면 허점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36, 96

申 32년생 자신이 없다면 행하지 말라. 44년생 다 된 마당에서 마무리가 시원찮을까 두려우니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56년생 종합적으로 실행 해야만 순조로운 양상으로 이끈다. 68년생 정반대의 판도로 비화 된다. 80년생 오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92년생 현태에 휘말려든다면 그 즉시 후회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7, 87

酉 33년생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물의 확보도 가능하다. 45년생 경제성까지 따져 보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다. 57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 69년생 난제를 잘 수습해야만 하는 형국에 놓여 있다. 81년생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 93년생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3, 65

戌 34년생 내실 있게 진행되리라. 46년생 중요한 일이 겹쳐서 분주해지겠다. 58년생 즉시 이뤄져야겠다. 70년생 많은 허점들이 보인다. 82년생 신중히 진력한다면 성과는 예상했던 바보다 크다. 94년생 요령껏 이행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행운의 숫자 : 16, 58

亥 35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47년생 부분적인 곳에 집착하지 말라. 59년생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71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까다로운 정황을 유연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상당한 충격 속에서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니라. 95년생 뜬구름 잡으려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4, 85